해외포교 '말 문' 먼저 열어야

2500여 년 전 부처님께서 전법포교를 위해 제자들을 외지로 파견하면서 현지의 사정에 맞추어 설법하라고 당부하셨음은 오늘의 포교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받들어야할 교훈이다. 부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던 '수기설법(隨機說法, 대상에 맞추어 설법함)'은 설법의 내용은 물론 형식과 방법에 있어서도 여전히 적용되어야 할 명제이다.

설법 도구인 언어의 중요성은 부처님 당시에도 부각되었으니, 포교의 대상 즉 청취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말하라는 것이다. 그 당시에도 종족과 지방에 따라 100여 가지 언어가 사용되었으리라 추측된다. 불제자들은 포교대상자의 언어를 구사하였고, 그러한 노력은 시대에 따라 인도 밖으로도 계속되었다. 남방과 북방으로 불교가 전파될 때 지역과 민족문화에 따라 여러 가지 언어가 사용되었으며, 그에 따라 경전이 번역·주석되어왔음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현지인·교포2세가 주 대상
의사소통·문화공감대 필수

근래에 우리도 해외포교를 시도해왔고, 이미 백여 개의 한국 사찰이 여러 나라에 설립 운영되고 있다. 그 실상을 보면, 극소수의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불교를 배우고 익힌 후에 그들의 조국에 돌아가거나 다른 나라에 머물며 그들이 학습한 것을 중심으로 포교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한국교포가 모여 사는 곳에 인연 있는 한국 스님들이 임의로 찾아가 나름대로 절을 만들고 한국어로 설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까닭에 해외사찰의 대다수가 미국에 몰려 있고, 한국교포가 적지 않게 살고 있는 다른 나라에는 한국 사찰이 없는 곳도 많다. 기존 한국 사찰의 포교 실태를 보더라도 교포위주의 한국어 설법이 대부분이며, 현지에서 태어나고 교육받은 교포 2세나 외국인들에 대한 포교는 미미하다. 이는 포교 주체인 스님이나 재가 포교사들의 자질과 언어능력의 한계 때문이다. 현지 언어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현지인들을 제대로 교화시킬 수 없으며, 결국 한국불교의 부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아쉬움을 느낀다. 언어장애를 극복하지 않고 포교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이제 종단 차원에서 해외포교를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이다. 불교 소양과 언어 능력을 갖춘 국제포교사를 양성하는 제도적 노력이 절실하다. 기존 포교사에 대한 연수교육도 시급하다. 한국의 세계적 위상에 걸맞고,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다른 나라 포교사의 국제포교 준비와 기독교 등 다른 종교의 선교활동도 참고할 만하다.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일어, 불어, 독어, 에스파냐어 등 여러 나라의 언어 교육을 준비하여야 하며, 종단 자체적 시설이 어려우면 외국어 대학을 포함하여 기존 교육기관의 협조를 받는 방법도 모색해 볼 수 있다.

■ **진월 스님**(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조계종 종회 멸빈자 사면 종헌개정 부결-과정·원인과 전망

원로들 간곡한 당부…1표 모자라 부결… '다음' 기대

세차례 중진모임서 공감대 형성
"만장일치"에 "종헌상 투표"맞서

3월 18일 오후 멸빈자 사면 종헌개정안의 표결을 앞두고 원로회의 의장 도원 스님과 부의장 종산·원명 스님이 종회장에 입장했다. 조계종 종회 사상 전례가 없던 일이었다.

도원 스님은 종회의원 스님들에게 "멸빈자 사면을 위해 종정 스님의 교시도 있었고 원로회의 유시도 있었다. 특히 종정스님이 전화를 해 개정안 통과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종산스님도 "어느 단체든 위계질서가 중요하다"며 개정안 통과를 요청했다.

이날 종회에서는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 안과 종헌 상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야 된다는 안이 맞서 몇 차례 휴회를 거듭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결국 무기명 비밀투표로 가닥을 잡았고 찬성 53명, 반대 21명으로 멸빈자 사면 종헌개정안은 부결됐다. 가결에 1표가 모자랐던 것이다.

왜 부결됐나?

멸빈자 사면 종헌개정안 처리를 위해 종회 중진 및 계파별 스님들이 8일, 10일, 13일 등 세 차례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 사면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파별 요구를 반영한 후 개정안 문안 검토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결되었을까?

첫째, 반대표를 던진 스님들 중 표면적으로는 사면에 찬성하지만 심정적으로는 여전히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스님들이 있다는 분석이다. 종단사태 당시 앙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종헌 제128조 '징계를 받은 자로서 비행을 참회하고 특히 선행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집행중이라도 징계를 사면, 경감 또는 복권시킬 수 있다. 다만,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멸빈자 사면을 위해 종헌을 개정한다는 것이 '과연 법률과 율장에 맞는 것인가'란 거부감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셋째, 사면 당사자들이 '참회와 개전의 정이 뚜렷한'지 의문을 품고 있는 스님들도 있다는 지적이다.

넷째,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집행부를 비롯, 여러 스님들이 공을 들였지만 그래도 준비가 부족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한다.

전망

2003년 4월에 열린 제158회 임시종회에서도 투표결과 찬성 41명, 반대 30명, 무효 1명으로 사면이 불발됐다. 그 후 1년 정도 지난 2004년 3월 제162회 임시종회에선 찬성 53명, 반대 21명으로 나왔다. 산술적으로는 찬성이 12명 증가한 것이다.

4월 1일부터 열리는 제163회 임시종회에 멸빈자 사면 개정안이 재상정됐다. 여기에선 개정안이 가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다. 162회 종회에 참석하지 않은 스님 중 한 명만 더 참석해 찬성에 표를 던지면 되기 때문이다. 또 162회 종회에서 사면에 반대했던 스님들의 체면도 어느 정도 세워졌고, 더 이상 설득력을 얻기가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한 종회의원 스님은 "단순히 산술적 계산만으로 낙관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사면방식에도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장일치'안과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의견이 여전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조계종 26기 행자교육원이 3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3월 19일 회향했다.

조계종 예비스님 134명 탄생

19일 송광사서 수계식

조계종 예비스님 134명이 새로 탄생했다. 조계종(총무원장 법장)은 3월 19일 순천 송광사 사자루에서 보성(송광사 방장)스님을 수계사로 사미(니) 수계식을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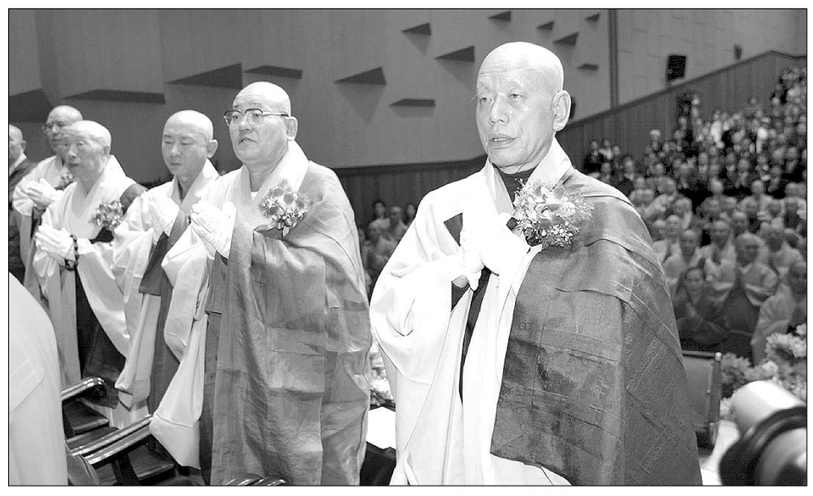
이날 계를 수지한 사미(니)는 조계종 제26기 행자교육원을 수료하고 5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남행자 69명, 여행자 67명 등 모두 134명이다. 조계종 교육원은 수계식에 앞서 대웅전에서 행자교육원 회향식을 거행했다.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치사를 통해 "출가사문의 길은 결코 편하고 쉽지 않다"며 "물러섬 없는 정진으로 깨달음을 얻어 방황하는 인류를 구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광사 주지 영조스님은 격려사에서 "오늘의 초발심을 잊지 말고 길고긴 수행자의 길을 걸어가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26기 행자교육원에는 남행자 78명 여행자 69명 등 총 147명이 입재했으나 13명의 행자가 탈락했다.

순천=이준엽 기자


학교법인 동국학원 제21대 이사장 현해 스님(맨 오른쪽)의 취임식이 3월 16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종회의장 지하 스님 등 사부대중 1천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렸다. 현해 스님은 "대학을 비롯한 산하 기관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불교병원의 조속하고 성공적인 개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박재완 기자

현해스님 동국학원 이사장 취임

"확실히 어려웠다"

4급 승가고시 합격률 81%

조계종 스님 되기가 확실히 어려워졌다. 3월 12일 치러진 조계종 제4급 승가고시에 425명(사미 246명, 식차마나니 179명)이 응시, 344명(사미 192명, 식차마나니 152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80.9%.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의 4급 승가고시 평균 합격률 95.5%에 비하면 15%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주관식 비율 증가 등 문제 난이도가 높았고 문항 수도 50문항에서 100문항도 늘었다.

합격자들은 4월 8~14일 통도사에서 열리는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에서 비구(니)계를 받아 조계종의 정식 스님이 된다.

권형진 기자

상표등록

미수다

반도체 안전 전구
반도체 전자 인등

25/1, 12/1의 절약은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전력을 많이 사용하시면서 안전장치를 하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적게 사용하는 것이 운용과 안전에 더욱 경제적입니다.

▣ 한국전력공사 저압전력 사용량별 요금표

사용량(kWh)	요금(원)	사용량(kWh)	요금(원)
50	2,310	260	32,260
60	3,200	270	34,130
70	4,100	280	36,020
80	4,990	290	37,900
90	5,880	300	39,780
100	6,780	310	44,720
110	8,590	320	47,440
120	9,890	330	50,150
130	11,190	340	52,870
140	12,500	350	55,580
150	13,800	360	58,300
160	15,090	370	61,020
170	16,390	380	63,730
180	17,690	390	66,450
190	19,000	400	69,710
200	20,300	500	112,430
210	22,850	600	188,460
220	24,730	700	258,510
230	26,610	800	328,580
240	28,500	900	398,640
250	30,370	1000	468,690
		1250	

전자전구 사용 전력
1/25배 절약
일반전구 사용 전력

첨단 기술이 모두에게
안전과 평안함을 드립니다

긴급 써비스
기술 지원 팀
011·9996·8872

전화 031-791-8871 792-8867~8